



2021플레이캠퍼스 정기연주회

프랑스 가곡시리즈 **달무리** 月暈

음악감독_조경진 음악코치_김리라

음악가	공연	연주자	비고
에릭 사티 Erik Satie, 1866~1925	사티, 몽마르트 달빛 아래 2021. 4. 9(금) pm7:30	김수향 소프라노 유현정 피아니스트	월출 (月出) 3부작
앙리 뒤파르크 Henri Duparc, 1848~1933	뒤파르크의 달과 6펜스 2021. 5. 14(금) pm7:30	신하섭 테너 조경진 피아니스트	
레날도 안 Reynaldo Hahn, 1875~1947	안 그리고 하얀달 2021. 6. 11(금) pm7:30	김신호 테너 윤혜연 피아니스트	
www.playcampus.com			
프랑시스 폴랑 Francis Poulenc, 1899~1963	가을의 달 2021. 9. 10(금) pm7:30	김신호 테너 윤혜연 피아니스트	월식 (月蝕) 3부작
가브리엘 포레 Gabriel Faure, 1845~1924	꿈꾼 후 2021. 10. 8(금) pm7:30	신하섭 테너 조경진 피아니스트	
클로드 드뷔시 Claude Debussy, 1862~1918	잊혀진 노래들 2021. 11. 12(금) pm7:30	김수향 소프라노 전형진 피아니스트	



혁명 · 자본 · 제국 그리고 예술

프랑스 가곡시리즈 **달무리**

2021플레이캠퍼스 정기연주회

예술의 역사만큼 1870년대부터 1914년까지의 기간에 부르주아 사회가 거쳐 온 위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은 없으리라. 이 시기는 창조적인 예술가들과 대중들 모두가 참을성을 잃어버린 시기였다.

에릭 홉스봄 『제국의 시대』

The Age of Empire 1875~1914



사티, 몽마르트 다빌 아래

김오페라

사티, 몽파르뜨 길에서 아래





에릭 사티
Erik Satie, 1866~1925

사티, 몽마르트 달빛 아래

사티(1866~1925)가 살던 시대는 혁명과 전쟁으로 기존의 권위와 윤리가 붕괴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젊은 세대에게 암흑기였습니다.

아버지 세대 또한 생존방식을 알려주지 못하고 자신들도 시대의 변화에 도태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사티 음악은 역설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에 작곡된 명상음악처럼 들립니다.

평소 우산을 들고 다니다 정작 비가 오면 우산이 젖을까 코트로 감싸 다녔다는 괴팍한 사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티 덕분에 분주하고 혼란스런 일상에서 평화와 명상을 제공하는 음악을 향유합니다.

〈사티, 몽마르트 달빛 아래〉는 프랑스 가곡에 대한 아카데미한 지식보다는 사티 음악처럼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도 일상에 매몰된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예술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티, 몽마르트 달빛 아래

길오페라
www.gilopera.com

구성	작품	비고
제1부 몽마르트	1. 상냥하게 Tendrement 2. 제국의 프리마돈나 La Diva de l' Empire 3. 난 당신을 원해요 Je Te Veux	생계&범속
4. 유현정 피아니스트 : 짐노페디 No.1		
제2부 달그림자	1장_잠수 인형(1923) 5. 쥐의 노래 Air du rat 6. 우울 Spleen 7. 미국 개구리 La grenouille américaine 8. 시인의 노래 Air du poète 9. 고양이 노래 Chanson du chat 2장_세 개의 멜로디(1886) 10. 천사들 Les anges 11. 애가(哀歌) Élégie 12. 실비 Sylvie	고립&몽환
제3부 달을 보며	세 개의 멜로디(1916) 13. 브론즈상 La statue de bronze 14. 다페네오 Daphénéo 15. 모자장수 Le chapelier 16. 달빛 Clair de lune (드뷔시곡)	귀환&고양





두파르크의 딸과 6펜스

김오페라



두파르크의 딸과 6펜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곳이 아닌 데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우연에 의해 엉뚱한 환경에 던져지긴 하였지만 늘 어딘지 모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 태어난 곳에서도 마냥 낯선 곳에 온 사람처럼 살고, 어린 시절부터 늘 다녔고 나무 우거진 샛길도, 어린 시절 뛰어 놀았던 바글대는 길거리도 한갓 지나가는 장소에 지나치 않는다. 어쩌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평생을 이방인처럼 살고,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보아온 주변 풍경에도 늘 서먹서먹한 기분을 느끼며 지낼지 모른다. 낯선 곳에 있다는 느낌, 바로 그러한 느낌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영원한 것을 찾아 멀리 사방을 헤매는 것이 아닐까.

- 서머싯 몸 『달과 6펜스』 중에서





고갱 <하얀 말> 1898작

두파르크의 **달과 6펜스**

신하섭 테너
조경진 피아니스트

구성	작품	비고
제1부 여행	1. Chanson triste 슬픈노래 2. Phidylé 피딜레 3. Extase 황홀	고향
제2부 피정	4. Soupir 한숨 5. Le manoir de Rosemonde 로즈몽드 장원 6. Élégie 비가	고적
조경진 피아니스트 <야상곡> 쇼팽곡 : Nocturne No.13 In C Minor, Op.48 No.1		
제3부 여정	7. L'invitation Au Voyage 여행으로의 초대 8. Testament 유언 9. La vie antérieure 전생	고찰



뒤파르크 Henri Duparc, 1848~1933



안 그리고 하얀꽃

짐 오페라



안 그리고 하얀줄

위트릴로作 church of stseverin



안 그리고 하만달

김신희 테너
윤혜연 피아니스트

구성	작품	비고
제1부 시 (詩)	1.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Si mes vers avaient des ailes 2. D'une prison 감옥 3. Les cygnes 백조 4. 별빛 없는 밤 Quand la nuit n'est pas étoilée	몽상
제2부 愛愁 (애수)	5. 그녀의 평안은 나의 행복 오페라 <돈조반니> 中 Dalla sua pace 6. Infidélité 부정(不貞) 7. Offrande 제물(祭物) 8. Les berceaux 요람(포레곡)	현실
윤혜연 피아노 독주		
제3부 시인 (詩人)	9. Paysage 풍경 10. L'heure exquise 아름다운 시간 11. À chloris 클로리스	융합



레날도 안

Reynaldo Hahn (1875~1947)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an with dark hair, wearing a suit, white shirt, and patterned tie. He is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of the camera with a neutral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dark and out of focus.

가을의 딸

2021. 9. 10(금) pm 7:30 플레이캠퍼스

김신희 테너 · 윤혜연 피아니스트

Francis Poulenc (1899~1963)

가을의 딸

Francis Poulenc, 1899~1963



가을의 달

Francois Poulenc, 1929-1962



폴랑(1899~1963), 드골과 비틀즈 너머 성찰과 위안을 노래하다

프랑시스 폴랑은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부모세대에게 전가하며 기존 질서와 권위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습성이 있는데, 폴랑은 과거의 예술을 비판하고 해체하는 대신 과거의 예술을 존중하고 계승하면서 역사를 함께 경험한 당대의 사람들에게 위안과 성찰의 계기를 선사합니다. 그 결과물로 오페라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1956)를 작곡하는데, 당시는 냉전시대로 민주주의의 선진국 미국에서는 반공주의(매카시즘)의 광풍으로 마녀사냥이 등장하고, 그 반동으로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럼의 마녀들>(The Crucible, 1953)이 창작되고,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록앤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비스의 첫 히트곡 <하트브레이크 호텔>은 폴랑의 오페라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가 완성된 1956년에 발표되고, 폴랑이 사망하는 1963년에는 비틀즈의 첫 앨범이 발표됩니다.

본 공연<가을의 달>은 폴랑의 위대한 오페라 대신 폴랑의 소박한 가곡으로 준비했고, 노래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한 일상이 아닌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작곡한 노래들로 구성했습니다. 전쟁 후 명성과 권위를 얻은 위대한 예술가 프랑시스 폴랑 대신 전쟁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이별의 불안을 겪으며 자신의 연인과 친구들을 위로하고, “당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으로 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인간 프랑시스 폴랑의 예술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을의 달 김신호 테너, 윤혜연 피아니스트 2021.9.10(금) 7:30pm 플레이캠퍼스	
구성	폴랑(Francis Poulenc, 1899~1963) 음악
제1부 불안	그의 기타(A sa guitare, 1935)
	부드럽고 작은 얼굴(Ce doux petit visage, 1939)
	폴과 버지니아(Paul et virginie, 1946)
	두 개의 멜로디(Deux melodies, 1956) 1. 생쥐(La souris) 2. 구름(Nuage)
제2부 상실	평범한 것들(Banalités, 1940)
	1. 오르케니즈의 노래(Chanson d'Orkenise)
	2. 호텔(Hôtel)
	3. 발로니의 숲(Fagnes de Wallonie)
	4. 파리의 여행(Voyage à Paris)
제3부 위안	5. 흐느낌(Sanglots)
	윤혜연 피아니스트 독주
	2개의 시(DEUX POEMES DE LOUIS ARAGON, 1940) 中 No.1 C
	평화를 위한 기도(Priez pour paix, 1938)
	사랑의 길(Lea chemins de l'amour, 1940)

꿈꾼 후

2021. 10. 8(금) pm 7:30 플레이캠퍼스

신하섭 테너 · 조경진 피아니스트

Gabriel Urbain Faure (1845~1924)



꽃꾼 후

Gabriel Faure, 1845~1924



잊혀진 노래들

2021. 11. 12 (금) pm 7:30 플레이캠퍼스

김수향 소프라노 · 전형진 피아니스트

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

잊혀진 노래들

Claude Debussy, 1862~1918



김정호, 꽃을 위하여 나약나비

성악가_이정미 소프라노 피아니스트_윤소미나 편곡_전형진·이상욱 연출_장한섬



吉 오페라
www.gilopera.com

2021. 3. 19 (금) 7:30pm 한중문화관 (인천역 부근)

기획_미디어밥 관람료: 50,000원 문의: (032) 777-8776

김정호, 꽃을 피우는 나뭇나비





배호, 황상연 베이스
스물아홉 青春

2021. 2. 19 (금) 7:30pm 한중문화관(인천역 부근)

기획 미디어밥 www.mediabab.com 관람료: 50,000원 문의: 032)777-8776

성악가 황상연 베이스 피아니스트 황선화 편곡 전영진 이상욱 연출 장한섬



오페라 라일

인천중구문화회관

동인천역

플레이캠퍼스

동구청소년수련관

도원역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 중구 경동 187-9

오페라 사랑의 약장수

2020. 8. 21(금)~22(토) pm7:30

인천역

한중문화관
인천 중구 재동로 238

다락소극장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3

오페라 아버지 제르몽

2020. 8. 14(금)~15(토) pm7:30

오페라 라보엠 캔들

2020. 8. 28(금)~29(토) pm7:30



홍예門문화연구소

길오페라마실2020

도시의 **건강** : 경계에서 관계로 _우현프로젝트

2014년 10월 3일 개천절.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로 뻗은 6차선 도로(우현로)를 가로지르며 풀밭이 펼쳐진다. 닳이 그려진 풀밭에서 사람들은 경쟁과 질주 대신 동행과 연대로 **홈 패인 공간을 매끄러운 공간으로** 창조한다(다음 해, 우현로에는 횡단보도가 그려진다).

“밑에서 옆으로”

도시의 **경건** : 미래기억_인현동화재참사추모제

1999년 10월 30일. 인현동(우현로83번길)에서 6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건물에 갇혀 화재로 목숨을 잃는다. 인천의 세월호 참사였음에도 지역사회는 망각했고, 집단기억을 상실한 집단지성은 개발주의에 매몰된다. 매년 10월 29일 밤 9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추모비 앞에서 시민과 함께 기억한다.

“안에서 밖으로”

도시의 **미감** : 길오페라마실_오페라,하우스로부터의 자유
예술은 무지개와 같아서 폭포(현실)의 격동과 폭음 위에서 현상을 관조할 수 있게 한다. 불행하게도 현실의 현상은 문화예술 없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문화도시를 만든다. 문화예술 생태계가 시멘트 천장 아래에서 질식한다. 플레이캠퍼스가 2010년부터 시작한 연극마실이 “밑에서 옆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했다면, 2020년부터 시작하는 길오페라마실은 오페라(집단지성)를 하우스(城)로부터 자유롭게 길바닥에 깔아놓는 무지개라 할 수 있다(오페라 감상보다 오페라를 보려고 도시를 걷게 하는 게 목적이다:인천발품).

“위에서 아래로”

기획_플레이캠퍼스 / 주최_길오페라 · 홍예門문화연구소

사랑의 만장수

원작 _ 도니제티 오페라 **L'Elisir d'Amore**

2020. 8. 21(금)~22(토) 7:30pm **한중문화관** (인천역 부근)

음악감독_전형진 피아노_윤소미나 · 황선화 연출/각색_장한섬

약장수 Dr. Love _ 나경일 · 박종선 베이스

지주의 딸 Adina _ 김수향 · 강우정 소프라노

젊은 농부 Nemorino _ 김명호 · 신하섭 테너

군인 Belcore _ 박경준 · 최정훈 바리톤

기획 _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제작 _ **길**오페라, 홍예문문화연구소

관람료 _ 80,000원

문의 _ 032) 777 - 8775



길오페라 **사랑의 약장수**

www.gilopera.com

원작 _ 도니제티 오페라 **L'Elisir d'Amore**

2020. **5. 29**(금)~**30**(토) 7:30pm **플레이캠퍼스**

음악감독_전형진 피아노_황선화 · 윤소미나 연출/각색_장한섬

등장인물_닥터 러브(Dr. Love) _ 박종선, 나경일 베이스

젊은 농부(Nemorino) _ 신하섭, 김명호 테너

지주의 딸(Adina) _ 강우정, 김수향 소프라노

군인(Belcore) _ 최정훈, 박경준 바리톤



구성		제목	
오프닝&해프닝		언약식 : 1950년대 어느 시골	
1막	언약식 30분 전		
2막	1장	책 읽는 여자	언약식 3일 전
	2장	꽃 든 남자	
	3장	잡아 봐라	
3막	1장	오프닝&해프닝	
		닥터 러브	언약식 파행 후
	2장	사랑의 묘약	
	3장	사랑의 변수	
	4장	다시, 잡아 봐라	
4막	1장	적과의 동맹	그날 밤
	2장	현숙한 여인	
	3장	새로운 공동체	

길오페라 소품(蘇品) 4부작

www.giloprea.com

길오페라	아버지 제르몽	사랑의 약장수	라보엠 캔들	나비의 칼
원작	La Traviata	L'elisir d'amore	La Boheme	Madam Butterfly
주제	삶으로의 전환	사랑의 조건	삶의 미학	자기창조
상징	비올레타 펜 제르몽 지팡이	아디나 책 마을 벤치	미미 촛불 시인의 펜	나비부인 칼 나비의 양산
신념	사회적 권위	정치적 공공	미학적 재생	연대적 행동



Opera

원작 _ 베르디 오페라 La Traviata

음악감독 _ 전형진

피아니스트 _ 윤소미나 · 윤혜연

조명 _ 신승일

음향 · 자막 _ 윤진솔

분장 _ EU분장 이정희

사진 _ 유창호 · 조근직

영상 _ 김진형 · 김혁

연출 · 각색 _ 장한섬

제르몽 _ 바리톤 엄현준 · 김우람

알프레도 _ 테너 김명호 · 원유대

비올레타 _ 소프라노 최주희 · 차보람

2020. 8. 14(금)~15(토) pm7:30

다락소극장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3)

기획 _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제작 _ 길오페라, 홍예문문화연구소

관람료 _ 80,000원 문의 _ 032) 777-8775

아버지 제르몽





라보엠 candle

오페라 원작 _ Giacomo Puccini 曲 **La Boheme** (1896)

2020. **8.28**(금)~**8.29**(토) 7:30pm **플레이캠퍼스**



라보잇 candle



라보앙트 candle



나비부인의 칼

오페라 원작 **Madama Butterfly** (1904)

2020.12.3(목)~4(금) pm7:30 **플레이캠퍼스**

관람료_80,000원 제작_길오페라 · 플레이캠퍼스

문의_032)777-8775 www.playcampus.com

후원_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합니다



길오페라
www.gilopera.com

1막_1905년 9월 마지막 밤 (현재)

나비부인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을 읽으며 미국으로 떠난 남편 핀커톤을 나가사키항에서 기다리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다.

2막_1899년 봄 (6년 전)

미해군 장교 핀커톤은 일본인 초초상을 부인으로 맞이하고자 목사를 대신할 공증인 미국대사 샤플레스를 초대한다. 샤플레스는 외교관으로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미군 장교 혼인문제에 개입한다.

혼례 중 초초상 삼촌 본조(승려)가 나타나 종교를 버리고 이교도이자 외국인과 결혼하는 초초상을 비난하고 파행을 저지르지만, 초초상은 핀커톤의 아내 나비부인이 된다.

3막_1905년 10월 첫날 아침 (현재)

나비부인 출타 중 핀커톤은 샤플레스 미국대사를 앞세워 방문하고, 자신의 철부지 사랑을 후회하며 하녀 스즈키에게 돈을 주고 떠난다. 샤플레스는 귀가한 나비부인에게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보내라고 조언한다. 나비부인은 명예로운 삶을 고민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유품(칼)을 손에 든다.



오페라 <나비의 칼> (원작: Madama Butterfly)



2020.12.3(목)~12.4(금) pm7:30 **플레이캠퍼스**

1막_1905년 9월 마지막 **밤** (현재)

2막_1899년 봄 (6년 전)

1장_해군장교&미국대사

2장_신부 초초

3장_사랑해주세요

3막_1905년 10월 첫날 **아침** (현재)

1장_기다리는 아내

2장_돌아온 남편

3장_결별과 시작

에밀리 디킨슨 (1830~1886) 詩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That Love is all there is,

우리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Is all we know of love;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

It is enough, the freight should be

자기 그릇만큼밖에는 담지 못하지.

Proportioned to the groove.

오페라<나비의 칼> 오프닝은 디킨슨 詩 낭송으로,
결말은 시바타 도요 詩 구현으로 각색 연출했다.

연출_장한섬

시바타 도요 (1911~2013) 詩 <아침은 올 거야> 中

홀로 살겠다고 / 결심했을 때부터 / 강한 여성이 되었어

참 많은 이들이 / 손을 내밀어 주었지

순수하게 기대는 것도 / 용기라는 걸 깨달았어

대명



나비의 날



김정호, 꽃들의 나약나비

성악가_이정미 피아노_윤소미나 편곡_전형진·이상욱 연출_장한섬



김정호, 꽃을 위하여 하얀나비 이정미 소프라노	
순서	노래
오프닝	빗속을 돌아서
제1부 길 떠나는 작은 새	새벽길
	작은 새
제2부 밤하늘 아래 달맞이꽃	이름 모를 소녀
	달맞이꽃
	외길
제3부 작은 배 맞는 등대	꽃잎
	하얀나비
	등대
	아름다운 사람

성악가_ 이정미 피아노_ 윤소미나 편곡_ 전형진 · 이상욱 연출_ 장한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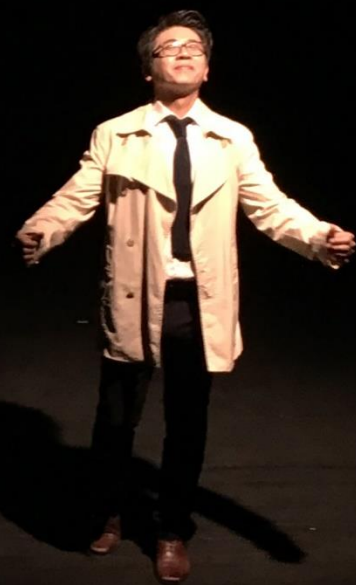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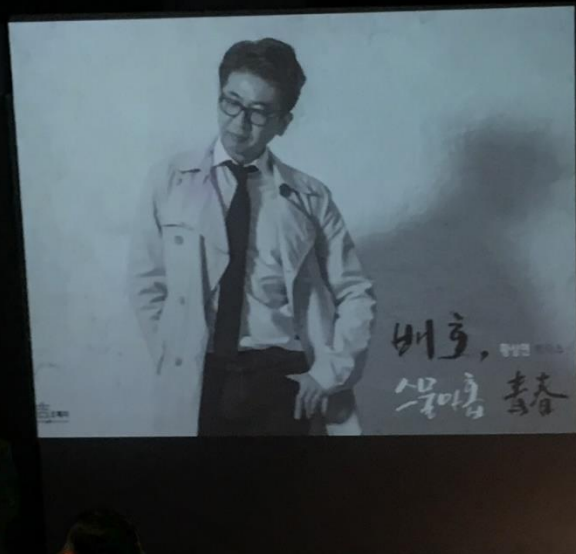


배호, 황상연 베이스
스물아홉 青春

2019. 10. 26 (토) 오후 7:30 플레이캠퍼스(인천 중구 경동 187-9)

기획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관람료 : 30,000원 문의 : 032) 777- 8775

성악가_황상연 베이스 피아노_황선화 음악감독_전형진 연출_장한섬



배호, 스물아홉 청춘

2019. 10. 26. 플레이캠퍼스



Opera

원작 _ 베르디 오페라 La Traviata

음악감독 _ 전형진

피아니스트 _ 황선화 · 윤소미나

조명 _ 신승일

음향 _ 차지현

분장 _ EU분장 이정희

사진 _ 유창호 · 조근직

캘리그래피 _ 송병훈

연출 · 각색 _ 장한섬

제르몽 _ 바리톤 엄현준 · 조병수

알프레도 _ 테너 최기수 · 김명호

비올레타 _ 소프라노 최주희 · 김정은

2019. 9. 20(금)~21(토) pm7:30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대공연장)

기획 _ 플레이캠퍼스 제작 _ 김오페라, Operacampus

관람료 _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문의 _ 032)777-8775

후원 _ 인천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인천문화재단

※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합니다

아버지 제르몽

제르몽 내 부탁이 가혹하다는 것을 잘 아오.
비올레타 불행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 제르몽

원작_베르디 오페라 La Traviata

음악감독_전형진

피아니스트_황선화 · 윤소미나

조명_신승일

음향_차지현

분장_EU분장 이정희

사진_유창호 · 조근직

캘리그래피_송병훈

연출·각색_장한섬

제르몽_바리톤 엄현준 · 조병수

알프레도_테너 최기수 · 김명호

비올레타_소프라노 최주희 · 김정은

2019. 9. 20(금)~21(토) pm7:30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대공연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십정동)

(전철1호선 백운역 하차 도보 5분 거리)

제작_길오페라, Operacampus

기획_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관람료_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문의_032) 777-8775 (12세 이상 관람가)

후원_인천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인천문화재단

※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합니다



가부장의 시대적 편견 아들의 연인을 내몰다

29·30일 플레이 캠퍼스서 '아버지 제르몽' 오페라 공연

시대의 편견과 관성이 사회적 약자의 사랑을 어떻게 억압하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오페라 '아버지 제르몽'이 29, 30일 오후 7시30분 인천시 중구 경동 인천기독병원 앞에 있는 문화공간 '플레이 캠퍼스' 무대에 오른다.

오페라 '아버지 제르몽'은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각색한 작품으로 아버지 제르몽과 아들 알프레도의 연인 비올레타 사이에 벌어지는 세대 간 충돌을 그린다.

원작 '라 트라비아타'가 두 남녀의 비극적 사랑을 보여주지만 '아버지 제르몽'은 기성세대이자 가부장을 대표하는 아버지 제르몽과 새로운 시대의 젊은 여성 비올레타의 신분차이에서 오는 갈등

에 초점을 맞추었다.

1막 비올레타의 집, 2막 찢어진 편지, 3막 파리의 비극으로 구성된 '아버지 제르몽'은 150분 분량의 원작을 80분으로 압축하여 쉬는 시간 없이 속도감 있게 원작의 비극을 전개한다.

1850년대 파리는 시민혁명과 왕정복고의 반동으로 정치가 혼란해지자 배금주의와 향락에 젖는다. 그럴수록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발언은 더욱 어렵고 불안해진다.

이런 혼란 속에서 비올레타는 자신을 지키고자 파리 사교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부와 명성을 추구한다. 그러다 남부 프랑스에서 온 순박한 귀족청년 알프레도를 사랑하게 되자 자신이 모은 재산

으로 돌란의 보금자리들을 만든다.

하지만 그들의 보금자리를 찾아온 아버지 제르몽은 편견과 선입관으로 비올레타를 대한다.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설명하는 비올레타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비올레타에게 헤어질 것을 부탁한다. 비올레타는 연인 알프레도에게 이별의 편지를 쓰고 집을 떠나 파리 사교계로 돌아간다.

알프레도는 편지를 읽고 분노를 느끼고 복수를 다짐하며 비올레타가 있는 파티장으로 간다. 오해와 분노 때문에 알프레도는 비올레타에게 모멸감을 주고, 비올레타는 상처를 받는다.

자신의 노파심이 일을 그르쳤음을 깨닫는 제르몽은 비올레타에게 사과의 편

지를 보내지만 비올레타는 절망을 안고 죽는다. 아들 알프레도는 비올레타가 죽자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사랑의 고통과 기쁨을 노래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제르몽은 괴로워하는 아들에게 프랑스의 대지와 바다를 떠올리는 노래를 부르며 고향으로 인도한다.

이번 공연의 주역인 제르몽은 바리톤 엄현준, 알프레도는 테너 최기수와 김명호, 비올레타는 소프라노 최주희와 김정은, 반주에는 피아니스트 황선화와 윤소미가 각각 맡는다.

관람료 5만원. 032-777-8775

/여승철 기자 yeoseungcheol@incheonilbo.com

/사진제공=플레이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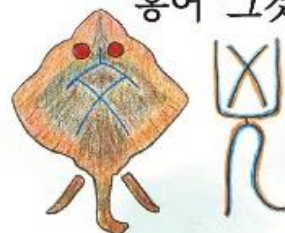


한자 韓字 너 어디 있었니?

18 흥기凶器

함부로 내두른 건 잘라라

흥어 '그것' 떼듯



가슴(心)칼로 칼로 베어(切)에 문신(文)을 하나 없애(消)는 흥(興)어(魚)충(蟲)인가? / 그림-소현

대중가요 '무기여 잘 있거라'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금지곡이었다. 제목이 문제가 된 것인데, 그래서 '남자여 잘 있거라'로 고쳐서 음반을 냈다. 세상이 변하면서 금지곡이라는 글씨에서 풀렸고 제목도 원래대로 돌아왔다.

30대 남자가 열 살짜리 어린 여자아이에게 물레 솜을 타 먹이고 성폭행 한 후 주둥이를 열었다. "우리가 합의한 성관계였어요. 제발 증인을 재판석에 불러 주세요."

법정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라남도 무주군 차관이 전남 중에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나가려다 출국금지를 받았다. 누구인지 뻔히 보이는 성관계 영상이라 감정할 필요가 없어 경찰은 그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찰리에 찰리를 문 버닝썬, 승리, 정준영, 플라, 성폭행, 성범죄 그리고 돈과 권력의 유착(癒着).

수능 흥어의 생식기는 두 개가 한쌍이 되어 꼬리 양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어떤 녀석들은 무려 15cm 이상 된다 하니 바다에서는 능히 이 녀석을 상대할 물고기가 없다. 그것도 2개씩이나. 청악전이 쓴 <자산어보>에는 흥어에 대한 설명이 있다. 흥어가 교미를 할 때 수놈은 날개에 달린 가시를 암놈의 몸에 박아 놓는다고 한다. 그래서 암놈이 낚시에 걸리면 수놈도 같이 따라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수놈의 그것을 떼어 배 밖으로 던진다. 이렇게 해서 '만만한 게 흥어 모(?)'라는 유래가 되었다.

흥기작별(凶器作別) '만만한 게 흥어 모 떼기'라는 4자숙담이다. 흥어 생식기는 크기만 했지 쓸모가 없어 잡기만 하면 떼어낸다는 뜻이다. 함부로 내두르는(?) 자들을 경계하며 아예 뻔 생각을 하지 못하게 거세(去勢)시키는 것을 말한다. 흥기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데 쓰는 연장(連槍)이니, 이것을 베어 내버리면 작별(作別) 인사하는 것이다. "흥기여 잘 가거라!"

凶器 [흥하다 / 흥악하다 / 해치다]

① 가슴(心)에 칼로 베어(切)에 문신(文)을 하나 없애(消)는 흥(興)어(魚)충(蟲)인가? ② 흥(興)화(化) 흥(興)은 가슴에 흥(興)한 문

베토벤

윤소미나 피아니스트 [월광]

김보람 피아니스트 [열정]

황선화 피아니스트 [비창]

피아노 소나타

Beethoven piano sonata

2019. 6. 19(수) pm7:30 플레이캠퍼스

제작_길오페라 기획_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관람료: 30,000원

문의: 032) 777-8775



명심하라, 누구나 낡아간다는 것

극단 아토, 21~23일 리어왕 각색한 세대 이야기 '낡은 사람' 무대

인전의 창작 전문극단 '아토'가 창단 5주년을 기념하여 연극 '낡은 사람'을 21일부터 23일 까지 인천 마추홀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연극 '낡은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왕>을 원작으로, 이를 세대 간의 이야기로 각색하여 극단 아토만의 색을 입힌 작품이다.

모든 권력을 내려놓기로 한 리어왕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운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유일한 친구인 늙은 왕자와 국민을 모아놓고 선거를 통해 국도를 세 남매(거너비, 리건, 코넬)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왕국은 거너비와 리건에게 양분된다. 이후 리어는 자신과 시종 백명의 몸을 의탁하고자 딸들을

찾아간다.

이 작품은 지난 2016년에 인천과 서울 대마로에서 선보였던 '리퍼블릭 리어'를 기반으로 재구성되었다. 3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리어왕의 이야기를 권력에 관한 이야기에서 세대에 관한 이야기로 재탄생시켰다. 작품에 어울리는 창작된 음악이 장면마다 구성되었고, 배우들의 움직임들 통해 작품의 의미를 전달한다.

연극 '낡은 사람'의 프로듀서이자 공동 연출인 이화정 극단 아토 대표는 "어쩌면 세대 간의 갈등은 각자 살아온 시대에 맞는 율음을 필요로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다"며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점차 빨라져서 아날로그 세대는 뒤처져있었고 낡아간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연극 '낡은 사람'의 한 장면을 연습하고 있다.

(사진제공 = 극단 아토)

존해야 하는 세상"이라며 작품을 설명했다.

21일은 오후 7시 30분, 22일 오후 4시, 23일 오후 3시에 막을 올리며 전석 2만원으로 중학생 이상 관람가능하다. 공연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추홀학산문화원 홈페이지(홈페이지 www.haksanculture.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03-2-8666-3994

(이화정 기자 yeop29@incheonilbo.com)

내일 커피 콘서트에서

깊은 맛 내리는 '우리 춤'



감각적인 무대와 부드러운 커피향이 조화를 이루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마티네 브랜드 '커피 콘서트'의 우리나라 대표 무용단인 인천시립무용단이 만났다. 한국 창작무용의 정수를 담아낸 장쾌한 공연을 비롯해 인천의 대표 춤축제 '춤추는 도시 인천' 등 다양한 도시 시민들에게 무용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는 인천시립무용단이 인기 프로그램 '우리 춤'을 찾아온다. 우리 춤의 깊은 맛을 전하고, 춤에 대한 이야기(담화)를 나누는 공연인 '우리 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동적 현장을 주요 무대였던 인천의 역사적 장소에 담긴 춤이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대불호텔, 용동관, 애관극장 등 인천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장소에서 춤과 함께 재탄생한 공연을 찾아보고 그 곳에서 주었던 춤들을 모아 우리 춤에 되살린다. 또 춤과 함께 당대의 시대상을 보여줄 신문기사, 영상자료 등이 상영되어 관객들이 그때 그 시절의 한 장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날 공연에선 당대 모던걸과 모던보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창작품 '청춘계급'을 비롯해 무대 중앙에 활짝 핀 모란의 꽃병을 놓고 인간의 무원이 편을 짜고 꽃을 희롱하는 춤인 '가인전투단', 대일 안의 전지 때에 주는 검무의 일종으로 무리들이 양손에 흰 칼을 휘두르면서 추는 '꽃춤검무', 장교의 공명과 재현의 소리가 음악의 조화를 이루며 무희의 화려한 기교와 어우러지는 '백단향' 등의 전통춤 레퍼토리와 함께 '초월동'으로 대표되는 최승희의 선무용 기예의 작품들 우리의 풍류를 가득 담는 춤이 잇따라 펼쳐진다. 전석 1만5000원. 032-420-2736

(이화정 기자 yeop29@incheonilbo.com)

(사진제공 = 인천시립무용단)

플레이캠퍼스 10주년 기획공연

세 여자 손끝의 베토벤



왼쪽부터 윤소미나, 김보람, 황선화 피아니스트

인천 중구의 문화공간 플레이캠퍼스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펼쳐지고 있는 기획시리즈 삼반기 마지막 공연으로 19일 오후 7시30분 베토벤(1780-1827)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1798), 제14번 월광(1801), 제23번 열정(1805)을 무대에 올린다.

플레이캠퍼스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남만주의 독일가곡을 매달 공연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고전주의 음악을 남만주의 이온 베토벤 음악이 관객을 맞이한다.

이번 공연은 세명의 여성 피아니스트 무대로 꾸며진다. 기획시리즈 첫 번째 공연이었던 슈베르트 가곡 '겨울나그네'를 연주한 황선화가 '비창', 두 번째 공연인 슈만 가곡 '시인의 사랑'을 연주한 윤소미나 가 '월광', 네 번째 작품 볼프 가곡 '미혼의 노래'를 연주한 김보람이 '열정'을 각각 연주한다.

베토벤 음악은 초기(1783-1803), 중기(1804-1816), 후기(1817-1827)로 나뉘는데, 이번 작품은 하이에(1732-1809)와 모차르트(1756-1791)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으로 음악을 작곡하는 시기로, 18세기말에서 새로운 19세기로 넘어가며 삼십대를 맞이하는 베토벤이 본격적으로 교향곡을 작곡하는 시기와 맞물린 작품들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잇는 베토벤의 음악적 진화를 압축적으로 나타낸다.

전석 3만원. 032-777-8775

(이화정 기자 yeop29@incheonilbo.com)

어, 조선, 실학을 독(讀)하다

④ 성호 이익(李瀾, 1681-1763) - (3) 학식자가 육식자를 근심하다

고기 먹는 벼슬아치 그릇된 정책에 콩잎 먹는 백성만 죽어나니 걱정뿐

성호 선생이 지은 <곽우록>(郭憂錄)의 집필 목적은 '간노도지(肝腦塗地)', <성호사설>의 부록적인 <곽우록>은 유형원의 <한계수록>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나는 천한 사람이다- 육식자(肉食者, 고기를 먹는 관리)가 묘당(廟堂, 당시의 의정부, 지금은 정부)에서 하루아침이라도 개혁을 잘못하면 학식자(儒食者, 콩잎을 먹는 백성)의 간(肝)과 뇌(腦)가 들반에 흩어지는 일이 어찌 없겠소나?"

"공일 귀(公一歸)는 백성이고, '근심 우'(憂)는 걱정이나 책 제목은 곧 '백성 걱정'이라는 뜻이다. 즉 '곽식자'는 콩잎을 먹고사는 백성으로, 고기반찬을 먹고사는 관리인 '육식자'에 빗대어 말이다. 조조(趙朝)는 백성이 진한공(新獻公)에게 글을 올리니 다스리는 제책을 듣기 요청하자 한공이 "고기 먹는 자가 이미 다 염려하고 있는데 콩잎 먹는 자가 정론(政論)에 뭐 있소나?"(肉食者議之 盡食者何有)고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글은 어떻게 되었을까? 진한공은 조조를 슬승으로 삼는다(실명, '선설' 항).

선생은 "나는 천한 사람이다(余賤人也)"이지만, "관리가 잘못하면 간과 뇌수가 들반에 흩어지는 참혹한 죽음을 향할 듯한 '간노도지'라는 표현을 끌어왔다. 이 말을 하는 선생의 심정을 구차하게 설 거 글줄로 설명할 필요 없다. "나는 백성적인 천한 백성에게에 국가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지만 육식자인 당신들이 잘못된 정책을 실시하니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견디고 지하지 않소나"는 항변이지, 자신이 <곽우록>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격정적 절규인 것이다.

사실 국민이 백성인 이 시대에도 국민들이 관리를 상대하기가 벅하다. 더욱이 저 시절 조선은 왕국이었다. 왕에게 대드는 글줄을 쓴다는 것은 목숨 줄이 여러 개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매우 비효율적인 행위였다. 각설하고 <곽우록>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조목별로 정리하였다. 즉 '경연(經筵)·육제(育才)·입법(立法)·치민(治民)·생제(生財)·국용(國用)·한변(捍邊)·병제(兵制)·학교(學校)·승례(崇禮)·식년시(式年試)·치군(治郡)·입사(入仕)·공거사의(貢舉私議)·선거사의(選舉私議)·전론(錢論)·군전론(均田論)·봉당론(明堂論)·논거지(論科擧之弊) 등 19개 항목에 논학제(論學制)를 첨부하였다. 경연·육제·입법·치민·생제·국용·한변·학교·승례·식년시·치군·입사 등 12개 항목은 <성호문집>에는 없

고 <곽우록>에만 보인다. 이를 당시의 통치법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六典)에 의거하여 나누어놓은 아래와 같다.

①이(吏): 관리의 종류와 임명에 대한 내용-경연·육제·입법·치민·입사·공거사의·승례(가 보았다. 개연소장) 선거사의·봉당론(8항) ②예(禮): 교육, 과거 시험과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한 내용-학교·승례·식년시·논거지·봉·논학제(5항) ③호(戶): 인구의 조세, 봉급 등에 대한 내용-생제·국용·전론·군전론(4항) ④병(兵): 국방에 대한 내용-한변·병제(2항) ⑤형(刑): 재판과 형벌, 재산 상속, 노비에 대한 내용-병제(1항)

이로 미루어 보면 선생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관리 제도와 교육, 과거 제도다. 다시, 산업 등에 대한 공조(工曹)와 관련된 내용은 전면 보이지 않는다.

조선왕조인 저 시절과 대한민국인 이 시절,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선생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래는 <성호선언행록>에 실린 글로, 성호 선생이 자신의 지서 <곽우록>을 두고 한 말이다.

"이 계책이 지금은 끝내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후세에 만일 채택되어 시행되므로써 평범한 한 남자와 아내가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면 내가 죽은 후라도 어찌 큰 행복이 아니겠소나?"(終不能行乎 今後 世若有採 而行之 使 一夫一婦得蒙其澤則 雖身死之後豈非厚幸乎)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땅의 국회는 몇 달째 공전하고 있다. 하지만 후안무치한 의원들은 오직공과만 불로소득을 잠만 켜진다. 모조리 성호 선생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곽우록>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다)

/유현(休軒) 관호
윤(鑑浩)·문학
박사는 인하대
학교와 서울교육
대학교에서 강의
하고 저서를 읽
고 글을 쓰는 고
전독자이다.



베토벤

황선화 피아니스트 [비창]

윤소мина 피아니스트 [월광]

김보람 피아니스트 [열정]

피아노 소나타

Beethoven piano sonata

2019. 6. 19(수) pm7:30 플레이캠퍼스

제작_길오페라 기획_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관람료: 30,000원

문의: 032) 777-8775





김진우 바리톤 전형진 피아니스트

항항하는 젊은이의 노래

Gustav Mahler (1860~1911)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2019. 5. 15(수) pm7:30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관람료_30,000원 (12세 이상 관람가) 문의_032)777-8775

기획_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제작_음오페라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말러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길오페라
www.gilopera.com

2019. 5. 15(수) pm 7:30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김진우 바리톤 전형진 피아니스트

Gustav Mahler(1860~1911)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순서	노래	작품집
제1부 반어(反語)	NO.3 세상은 나를 잊었네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	뤼케르트 가곡
	NO.4 푸른 두 눈동자 Die zwei blauen Augen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2악장		
제2부 반항(反抗)	절룩거리네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 곡, 전형진 편곡)	
	NO.1 그녀의 결혼식 날 Wenn mein Schatz Hochzeit macht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NO.3 분노의 칼 Ich hab ein glühend Messer	
피아노 독주_전형진		
제3부 반향(反響)	NO.4 한밤중에 Um Mitternacht	뤼케르트 가곡
	NO.11 봄날의 꿈 Frühlingstraum	슈베르트 곡 [겨울나그네]
	NO.2 아침 들판을 거닐며 Ging heut' morgen über's Feld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말러(1860~1911)의 시대는 유럽을 보수적으로 지배한 빈체제(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을 말살하고 절대왕정을 복구하고 유지한 체제) 붕괴 후, 그 동안 억압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분출되던 시기이자, 제1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던 허무와 우울의 시대였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말러는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같은 해(1885)에 작곡한다(말러는 같은 시기 교향곡 1번 [거인]을 구상한다).

말러는 제국의 중심 비엔나에서 음악을 했지만, 스스로 “나는 삼중으로 고향이 없는 사람”으로 자처한다. 그러면서 대지의 마찰(속력)과 중력 속에서 성(城)을 쌓는 대신 땅속 미로와 우주의 무중력 속에서 반어와 반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한다. 본 공연은 옛 체제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과 지상의 중력에 반항하는 거인 사이에서 분투하는 말러를 그린다. 나아가 헬조선의 방황하는 청춘에게 용기를 주고자 한다.

연출_장한섬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2019. 5. 15(수) pm 7:30 플레이캠퍼스 (인천기독병원 앞)

관람료_전석 30,000원 문의_032)777-8775

바리톤_김진우 피아니스트_전형진 제작_길오페라

플레이캠퍼스 울리는 청년 말리의 애상곡

바리톤 '김진우'·피아니스트 '전형진'

15일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협연



플레이캠퍼스 개관 10주년 기념 '말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에 참여하는 바리톤 김진우. /사진제공=플레이캠퍼스

인천 중구의 문화공간 플레이캠퍼스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펼치고 있는 기획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으로 '말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바리톤 김진우와 피아니스트 전형진의 협연으로 관객을 맞는다.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는 구스타프 말리(Gustav Mahler 1860~1911)의 '여름나그네'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독일가곡의 분수령이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라면 독일가곡을 호숫가로 견인한 작품이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이다. 독일가곡은 피아노와 나란히 선 소품으로 시작하지만, 말리 이후 독일가곡은 오케스트라 위를 산책하며 사색하는 품모로 완성된다.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는 실연의 아픔을 경험한 20대 말리의 삶이 담긴 작품으로, 두 번째 노래 '아침 들판을 거닐며'와 네 번째 노래 '푸른 두 눈동자'는 교향곡 1번 '거인' 1악장과 3악장으로 확장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말리의 작품세계보다는 성악가 김진우의 삶이 어떻게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에 투영되고 독일 유학시절 '겨울나그네'에서 '여름나그네'로 진화한 성장 스토리로 엮어서 보여준다.

바리톤 김진우는 중앙대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국립음대 학사를 거쳐 뮌스터 국립음대에서 석사와 전문연주자 과정, 독일 함부르크 브람스 음악원의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독일 Euregio 국제성악콩쿨 2위, 이탈리아 Gianluca Campochiario 국제성악콩쿨 3위, Bell'arte 국제성악콩쿨 3위 등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의 국제콩쿨에서 입상했다.

피아니스트 전형진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한 뒤 독일 Siegfried Gschwilm 콩쿨 1등상 수상, 독일바이토이트 오페라 코치 등을 역임했다.

/여승철 기자 yeop09@incheonilbo.com



2019. 5. 15(수) pm7:30 플

김

Gustav Mahler(1860~1911) L



배호, 스물마흔 青春

길오페라
www.gilopera.com

기획_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관람료 : 30,000원 문의 : 032) 777- 8775

성악가_최기수 테너 황상연 베이스 엄현준 바리톤 피아노_황선화·윤소미나 음악감독_전형진 연출_장한섬

2019. 4. 23 (화) 오후 7:30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吉오락
www.gioyork.com

創主, 榮耀青春

2019. 4. 23. 부평아트센터



가수 배호(1942~1971)

시대를 위로한 ‘영원한 청년’의 노래 다시 듣기

광장을 잃어버린 시대에 공장으로 내몰렸던 사람들을 위로했던 ‘요절 가수’ 배호를 재조명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인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23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배호, 스물아홉 청춘’은 1960~70년대 주옥같은 히트곡으로 가요계를 풍미했던 배호의 명곡들을 클래식으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지난 1955년 배호가 17살의 나이로 당시 미군부대 나이트클럽 ‘55 YESCOM’에서 드림을 치기 시작하며 처음 취직한 지역인 부평에서 배호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음악회는 1971년 29살에 사망한 배호의 노래를 상징하는 ‘안개(霧)’, ‘비(雨)’, ‘밤(夜)’를 주제로 3부로 구성됐으며, 당대를 대표하는 팝송과 또 다른 ‘요절 가수’ 김정호의 노래도 선보인다.

베이스 황상연이 피아니스트 황선화의 반주에 맞춰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장충단 공원’, ‘누가 물어’, ‘빛소리는 나의

부평아트센터서 23일 ‘배호, 스물아홉 청춘’ 음악회
클래식으로 히트곡 재구성...향수 넘어 성찰 기회도

테너 최기수

베이스 황상연

바리톤 염현준



마음’, ‘서울 야곡’, ‘마지막 잎새’ 등을 부르고 테너 최기수와 바리톤 염현준이 윤소미나의 피아노 반주로 김정호의 ‘빗속을 돌아서’, ‘작은 새’와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맥클린의 ‘빈센트’ 등을 들려준다. 이와 함께 성악가들이 노래에 얹힌 사연과 지금도 불리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산업화 시대의 향수를 넘어 성찰을 제공한다.

이번 음악회를 연출한 문화공간 플레이캠퍼스의 장한섬 대표는 “이번 공연은 볼품없는 공연지대이자 미군기지가 있었던 부평이 배호 음악의 근원지라는 지역의 자긍심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부모세대와 자식세대를 잇는 노래를 공연장에서 함께 공감하면서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춥더라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는 집단기억을 재생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석 3만원.032-777-8775

/여승철 기자 yeopc99@incheonilbo.com

/사진제공=플레이캠퍼스

인천일보 2019.4.19(금) 15면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three men in suits. The man on the left is smiling and holding a smartphone high in the air with his right hand. The man in the middle is looking up with a slight smile. The man on the right is wearing glasses and looking up. They are all looking towards the upper left corner of the frame, where a bright light source is visible.

배호, 스물아홉, 青春

2019. 4. 23 (화) 오후 7:30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기획_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관람료: 30,000원 문의: (032) 777- 8775

성악가_최기수 테너 염현준 바리톤 황상연 베이스 피아노_황선화·윤소미나 음악감독_전형진 연출_장한섬

길
오페라
www.gilopera.com

유정 소프라노 김보람 피아니스트

머민의 침묵과 노래

Hugo Wolf(1860~1903) *Mignons Lieder*

2019. 4. 17(수) pm7:30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관람료_30,000원 문의_032)777-8775

기획_플레이캠퍼스 제작_김오페라, ©*peracampus*



중구 문화공간 '플레이캠퍼스' 10주년 공연 볼프, 여인의 침묵과 노래

원제 '미농의 노래' 남성 시각 벗어나 인간의 성숙함으로 그려내

소프라노 유정

네번째 기획시리즈 17일 무대

인천 중구 경동에 있는 문화공간 플레이캠퍼스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펼치고 있는 기획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볼프, 여인의 침묵과 노래'를 17일 오후 7시30분 무대에 올린다.

'여인의 침묵과 노래'의 원제는 후고 볼프(Hugo Wolf, 1860~1903)의 연가곡 '미농의 노래 Mignon's Lied'이다.

미농은 괴테의 교양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습시대>에 나오는 여자 아이로, 슈베르트 이후 다수의 유명 작곡가가 남성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 캐릭터이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1부 '소녀-미농', 2부 '여인-볼프', 3부 '기도-오키프'로 구성되어 여자 아이에서 비극을 맞는 캐릭터를 넘어 여인으로 성장통과 인간으로의 성숙함으로 표현하고자 재배치했고 볼프의 또 다른 작품 '외리케 가곡'을 삽입했다.

특히 베니자 올프의 소설 <등대로>와 조지아 오키프의 삶을 바탕으로 삼고, 볼프 가곡을 씨줄로 삼아 직조하여 미농의 비극 대신 보편적 인간으로 성숙해지는 여성을 그렸다.

소프라노 유정이 피아니스트 김보람의 연주에 맞춰 미농의 노래로 '남쪽 나라를 아시나요', '그리움만 있어 이', '이 모습을 그대로 두세요', '말하라 하지 마세요'와 외리케 가곡으로 '세상을 피해서', '기도'를 들려준다.

볼프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슈베르트와 슈만의 뒤를 이은 19세기 독일 가곡 작곡가다. 낭만주의 가곡 300여곡과 7편의 가곡집을 남겼으며 19세기 독일 가곡을 정상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플레이캠퍼스 장한성 대표는 "볼프의 가곡은 '편지가 아닌 절벽에서 핀 꽃' 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자란 꽃'이라는 평을 받는다"며 "이번 '볼프, 여인의 침묵과 노래'는 역설적으로 괴테의 '구원의 여인상'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소설 속 미농에서 출발하여 소설 밖 베니자 올프의 고민과 사막에서 꽃을 그린 조지아 오키프의 강인한 생명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람료 3만원. 032-777-8775

/여승철 기자 yaacp99@incheonilbo.com 사진제공-플레이캠퍼스

차문화경연 대상에 권석휘 가천대생

'제22회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 영예의 대상은 권석휘(24·가천대 의용생체공학과4) 학생에게 돌아갔다.

대한민국차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성군청, 하동군청, 규방다례보존회가 후원하는 차예절 경연대회는,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경연대회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로,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 22회를 맞아 지난 13일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대상에 권석휘 학생 외에 각 부문별 최우수상인 가천대 총장상에 5명, 보성군수상에 5명, 하동군수상에 5명, 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에 4명,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에 4명 등과 우수상, 차문화상, 인성예절상, 특별상 등이 수여됐다.

최소연 이사장은 "한국차문화협회는 98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차문화를 통하여 굳은 인성을 기르시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득 품고서 이 나라의栋梁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오늘 경연대회를 통하여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승철 기자 yaacp99@incheonilbo.com



권석휘 대상 수상자와 최소연 이사장.

/사진제공-한국차문화협회

볼프, 여인의 침묵과 노래			
순서		노래 (소프라노_유정)	작품(가곡집)
제1부 소녀:미농	1	NO.12 세상을 피해서 Verborgenheit	외뢰케 가곡집
	2	NO.4 남쪽 나라를 아시나요 Kennst du das Land	미농의 노래
3 (피아노 연주) 김보람			
제2부 여인:울프	4	NO.2 그리움만 아는 이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미농의 노래
	5	NO.3 이 모습 이대로 두세요 So laßt mich scheinen	
6 (피아노 연주) 김보람			
제3부 기도:오키프	7	NO.1 말하라 하지 마세요 Heiß' mich nicht reden	미농의 노래
	8	NO.28 기도 Gebet	외뢰케 가곡집

2019. 4. 17(수) pm7:30 플레이캠퍼스(인천기독병원 앞)

관람료_전석 30,000원 문의_032)777-8775

제작_길오페라 / ©peracampus

기획_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모성과 소녀 밖으로 : 절벽에서 핀 꽃

훌륭한 것은 발견되기도 드물지만, 높이 평가되기란 더욱 드물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은 높은 곳이지 계단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꼭대기를 바라보며 평지에서 걷기를 좋아한다.

괴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중에서

독일가곡의 분수령이 된 슈베르트 이후 슈만과 볼프 가곡은 평지가 아닌 절벽에서 핀 꽃이 된다. 그것도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자란 꽃이다(반면, 브람스와 말러 가곡은 바람 부는 고원에서 성장한 나무다). 그 중에서도 슈만이 클라라에게 결혼선물로 바친 [여인의 사랑과 생애]와 볼프의 [미농의 노래]는 절창(絶唱)이다. 유감스럽게도 작품보다 작곡가의 삶이 더 드라마틱하게 조명된 탓에, 그리고 남성시각과 언어로 해석된 탓에 이 노래들은 모성의 아름다움과 소녀의 신비로움으로 채색된다. 정작 현실 속 클라라는 미망인이 되어 다섯 명의 자식을 키우려고 동분서주했고, 미농(『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소녀)은 신비로움 삶 대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슈만과 볼프는 미쳐죽었는지 모른다. 작품을 창조하는 재능은 있었지만 작품처럼 사는 의지와 자아 밖으로 나아가는 용기는 부족했다. 오히려 괴테는 미농 이후 새로운 여성상을 창조하여 격변기에도 강인하게 살아남는다.

[볼프, 여인의 침묵과 노래]는 역설적으로 괴테의 그늘(구원의 여인상)에서 벗어나 고자 소설 속 미농에서 출발하여 소설 밖 버지니아 울프(1882~1941)의 고민과 사막에서 꽃을 그린 조지아 오키프(1887~1986)의 강인한 생명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출_장한섬

류현수 메조소프라노 조시온 피아니스트

여인의 사랑과 생애

Schumann (1810~1856) *Frauenliebe und Leben*

2019. 3. 20 (수) pm7:30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기획_플레이캠퍼스 제작_김오페라, ©*peracampus* 관람료_30,000원 (12세 이상 관람가) 문의_032)777-8775



슈만 連歌曲 『여인의 사랑과 생애』 메조소프라노_류현수

피아노_조시온 연출_장한섬

1. 만남_Seit ich ihn gesehen
2. 감탄_Er, der Herrlichste von allen
3. 운명_Ich kann's nicht fassen, nicht glauben
4. 반지_Du Ring an meinem Finger
5. 결혼_Helft mir, ihr Schwestern
6. 임신_Süsser Freund, du blickest
7. 양육_An meinem Herzen
8. 사별_Nun hast du mir den ersten Schmerz getan

2019. 3. 20(수) pm7:30 플레이캠퍼스(인천기독병원 앞)

관람료_전석 30,000원 문의_032)777-8775

제작_길오페라 / ©Operacampus

기획_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클라라 슈만, 사랑의 집에서 사람의 길을 걷다

거장(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이 물러간 1830년대
1810년 전후의 또래 집단(멘델스존, 쇼팽, 슈만, 리스트)은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창조하고자 고민하고 교류한다.
그 사이에서 매개자와 균형추 역할을 한 이가 바로 클라라다.

클라라는 슈만의 아내가 되기 전부터 당대 최고의 피아노 교사인
아버지(슈만의 스승)로부터 음악을 배우고 피테 앞에서 연주한 유망주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아버지와 결별하고 슈만의 아내가 된 후
8명의 아이를 낳고 육아와 내조로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집에 가둔다.
그렇다고 클라라가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이들을 짐처럼 여기지는 않았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음악을 작곡했고,
훗날 미망인이 된 클라라는 슈만의 음악으로 대가로 거듭난다.
아이들(특히 큰딸 마리)도 비서처럼 어머니를 돕는다.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슈만이 결혼선물로 작곡한 가곡으로,
아내의 삶을 예언한 듯 클라라의 삶은 노래처럼 흘러간다.
아이러니하게도 클라라의 명성이 최고조에 오를 때
클라라의 삶과 대조되는 모파상 소설 『여자의 일생』이 출간된다.
그렇지만 클라라의 삶이 소설보다 더 감동적이고,
클라라(1819~1896)의 생명력이 모파상(1850~1893)보다 더 오래 간다.
슈만의 음악과 클라라의 인생은 기법과 사조보다
사랑과 신뢰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공연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이러한 세계관과 스토리를 전한다.

남편이 작곡한 가곡처럼 흘러갔다

‘슈만의 아내’ 클라라

20일 플레이 캠퍼스 ‘여인의 사랑과 생애’ 공연

메조소프라노 류현수·피아니스트 조시온 협연



메조소프라노 류현수

19세기 독일 예술가곡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만의 아내 클라라의 소설보다 감동적인 삶을 그린 ‘여인의 사랑과 생애’ 공연이 인천시민을 찾는다.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인천시 중구 경동인 천기독병원 앞에 있는 문화공간 ‘플레이 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만남’부터 ‘감탄’, ‘운명’, ‘반지’, ‘결혼’, ‘임신’, ‘양육’, ‘사별’ 등으로 구성됐으며 메조소프라노 류현수와 피아니스트 조시온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 거장이 물려간 1830년대에 슈만, 멘델스존, 쇼팽, 리스트 등은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창조하고자 고민하고 교류한다. 그들 사이에서 매개자와 균형추 역할을 한 여인이 바로 클라라이다.

클라라는 슈만의 아내가 되기 전부터 당대 최고의 피아노 교사이자 슈만의 스승인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우고 고틀 앞에서 연주한 유망주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아버지와 결별하고 슈만의 아내가 된 후 8명의 아이를 낳고 육아와 내조로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가정에

가둔채 생활한다. 그럼에도 클라라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이들을 짐처럼 여기지는 않는다. 남편 슈만은 아내를 위해 음악을 작곡했고, 훗날 미망인이 된 클라라는 슈만의 음악을 통해 대가로 거듭난다.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슈만이 결혼선물로 작곡한 가곡으로, 아내의 삶을 예언한 듯 클라라의 삶은 노래처럼 흘러간다. 아이러니하게도 클라라의 명성이 최고조에 오를 때 클라라의 삶과 대조되는 모파상의 소설 <여자의 일생>이 출간되지만 소설보다 더 감동적인 클라라의 삶은 생명력을 이어간다.

메조소프라노 류현수는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오페라과 석사과정과 뮌헨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했으며 솔리스트 과정을 졸업했다.

성악가 Mirella Freni, Edda Moser의 마스터 클래스에 장학생으로 참가하여 학구적인 연구 활동에도 열성을 다한 그녀는 독일 마르티팅 성악콩쿨 1위와 관객상, 뮌헨 국립음대에서 주최한 포셀 음악콩쿨 최고연주자과정 전 부문 중

대상, 이탈리아 가에타노 프라스키니 국제 콩쿨 1위없는 2위, 줄리엠타 시묘나토 국제 성악콩쿨 2위, 살레 국제 성악콩쿨 3위 등을 차례로 수상하며 탄탄한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피아니스트 조시온은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종합반주 및 음악코치 석사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스포츠투데이와 미국 베네스다 대학 주최 음악콩쿨 1위,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주최 음악콩쿨 1위에 올랐다. Hugo Wolf의 밤, 프랑스 작곡가의 밤 등 국내외 다수의 연주에 출연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강사 및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이다.

플레이캠퍼스 장한섬 대표는 “슈만의 음악과 클라라의 인생은 기법과 사조보다 사랑과 신뢰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이번 공연은 ‘사랑의 집에서 사람의 길’을 걷는 클라라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전한다”고 말했다.

관람료 3만원. 032-777-8775

/여승철 기자 yeopa99@incheonilbo.com

시인의 사랑

백광호 테너 윤소미나 피아니스트





시인의 사랑

백광호 테너 윌스미나 피아니스트

Schumann(1810~1856) *Dichterliebe Op.48*

2019. 2. 20 (수) pm7:30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침묵을 그린 음악가 슈만

슈만의 가곡은 피아노 선율 속에서 가사가 조약돌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노랫말이 징검다리처럼 놓이고 피아노 선율은 시냇물처럼 해엄친다. 그렇다고 가사와 선율이 돌과 물처럼 강성과 유속의 충돌과 마찰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단절과 장벽으로 가로막힌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 풍경으로 확장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가곡 [시인의 사랑]은 슈만의 오작교(烏鵲橋)라 할 수 있다.

가곡 [시인의 사랑]은 슈만이 스승과의 법정소송(결혼반대) 중 스승의 딸이자 자신의 연인 클라라를 위해서 작곡한 작품이다. 비유하면 이 애정의 산물은 어두운 우물의 우울한 고독 속에서 침묵으로 빚어낸 보석이다. 가곡 앞뒤에 배치된 피아노의 전주와 후주는 고독의 우물을 타고 우물우물 기어 나오는 침묵의 기도처럼 들린다.

베토벤이 고요한 전원과 포효하는 화산 사이에 존재한 음악가였다면, 슈만은 침묵의 우물과 격정의 용광로를 품은 음악가였다. 덧붙이면, 베토벤이 음악으로 이념을 웅변하고, 슈베르트가 음악으로 정념을 이야기했다면, 슈만은 음악으로 침묵을 그렸다. 정확한 음악의 직관력으로 침묵의 개념을 융합시켜 독일가곡(Lied)을 격상시킨다.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음악에 '개념을 담는' 것은 모순이지만 예술은 그것을 가능케 한다. 더욱이 슈만은 작곡가이자 글을 쓰는 평론가였다. 그 때문에 당대 음악가와의 유사성보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에 더 가까운 면이 있다. 그러나 둘 다 사랑에 실패(거부)한 위인이라는 점에서 슈만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사랑의 덧없음을 실팍한 쇼펜하우어야말로 슈만을 이해하는 거울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예술은 어떤 경우에도 목적을 달성한다. 예술은 자신의 관조 대상을 세상만사의 흐름에서 끄집어내어 그것을 홀로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예술은 그림자에 관해 말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음악은 본질에 관해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슈만은 음악의 본질을 찾기 위해 종종 우물에 들어가지만 항상 보석을 빚은 것은 아니다. 훗날 슈만은 우물이 아닌 라인강에 투신하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삶을 마감한다. 비록 시대의 벽은 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음악은 빛어났다.

슈만이 활동한 1840~1850년대는 역사학자 홉스봄의 표현을 빌리면 '혁명의 시대'에서 '자본의 시대'로 이동하는 시기다. 유럽은 도시화와 중산층의 증가로 여가문화가 등장한다. 그리하여 음악 또한 궁정과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가고 왕과 귀족의 후원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하지만 새로운 정중을 사로잡아야 할 시대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음악가들은 군중의 욕구에 영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음악을 창조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슈만은 후자를 선택하고 낭만파의 기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슈만의 가곡은 박수와 환호로 채워지는 극장보다 골방에서 홀로 듣는 게 더 어울린다. 그런데 오늘 날 누가 침묵에 대해 공명하던 말인가? 본 음악회는 세상의 권위와 비난을 침묵의 기도로 뚫고 나간 슈만의 위대함을 들려주는 것보다 단 한 시간 동안이라도 후대폰을 끄고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목적이다. 나아가 음악과 함께 음악가의 삶과 그 시대에 공명함으로써 "세상만사의 흐름에서 끄집어내어 그것을 홀로 고립"시키는 자신만의 우물을 내면에서 발견하기를 바란다. 세상살이가 사막처럼 삭막한 이 시대에 예술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연출 _ 장한성

슈만과 클라라처럼 속삭이다

20일 경동 문화공간 플레이캠퍼스
음악회 ‘시인의 사랑’ 무대에 올려
백광호 테너·윤소미나 피아니스트
슈만 연가곡 계절별로 나눠 재구성

단절과 장벽으로 가로막힌 두 세계를 이어주는 오작교(烏鵲橋)와 같은 음악회가 열린다.

인천 중구 경동에 있는 문화공간 플레이캠퍼스에서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슈만의 연가곡(連歌曲) ‘시인의 사랑’을 ‘사랑의 사계절’로 구성한 공연을 선보인다.

‘시인의 사랑’은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를 바탕으로 ‘봄의 눈길’, ‘여름 눈물’, ‘가을 노래’, ‘겨울 꿈길’ 등 사계절로 나눠 ‘아름다운 5월’을 시작으로 ‘나의 마음을 적시리’, ‘만일 예쁜 꽃이 안다면’, ‘불길한 노래여’ 등 모두 16곡을 들려준다.

‘시인의 사랑’은 슈만이 스승과의 법정소송 중 스승의 딸이자 자신의 연인 클라라를 위해 작곡했다. 어두운 우물의 우울한 고독 속에서 침묵으로 빚어낸 보석같은 작품이다. 곡 앞뒤에 배치된 피아노의 전주와 후주는 고독의 우물을 타고 우물우물 기어나오는 침묵의 기도처럼 들린다. 훗날 슈만은 우물이 아닌 라인강에 투신하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삶을 마감한다. 비록 시대의 벽은 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음악은 빛어났다.

공연을 이끌어갈 테너 백광호는 중앙대학교 성악과 졸업한 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



테너 백광호(오른쪽)와 피아니스트 윤소미나.

/사진제공=플레이캠퍼스

립음대에서 가곡, 종교곡 최고연주자과정과 오페라과정을 졸업했다.

피아니스트 윤소미나는 독일 바이마르 국립 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며 전문연주자로서의 단단한 기반을 마련했다.

연출을 맡은 플레이캠퍼스 장한섬 대표는 “이번 음악회는 세상의 권위와 비난을 침묵의 기도로 뚫고 나간 슈만의 위대함을 들려주는 것보다 단 한 시간동안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인천연극의 모태였던 돌체소극장을 리모델링해 2009년 개관한 플레이캠퍼스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두 번째 작품으로 6월까지 19세기 독일가곡을 21세기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무대에 올린다. 관람료 3만원. 032-777-8775

/여승철 기자 yeop99@incheonilbo.com



겨울나그네,

황상연 베이스, 황선화 피아니스트

Schubert (1797~1828) *Die Winterreise D.911*

마의 손을 너다

2019. 1. 16 (수) pm7:30 플레이캠퍼스 (인천기독병원 앞)

관람료 30,000원 (12세 이상 관람가) 문의 032)777-8775

기획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제작 김오페라

19세기 달콤한 왈츠로 여는 2019

18일 인천시향 신년음악회

인천시립교향악단이 흥겨운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로 2019년의 활기찬 시작을 알린다.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병욱 예술감독 지휘 아래 신년음악회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빈 신년음악회'에서 자주 연주되는 작곡가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을 만끽할 수 있다.

연주회의 시작은 웅장한 금관악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로시니의 '월리엄 텔' 서곡으로 연다. 이어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의 향연이 펼쳐진다.

2018 대구국제오페라 축제 성악가상을 수상하며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소프라노 이윤경과 독일 카셀극장 전속가수로 유럽에서 데뷔 후 독



일 하노버극장 전속 가수로 활동한 테너 허영훈이 각각 오페라 루셀카 중 '달에게 부치는 노래', 오페라 카르멘 중 '꽃노래' 등을 들려준다.

두 사람은 오페라 리보예 중 '오 사람 스러운 아가씨'와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임술은 침묵하지만' 등을 함께 부르며, 연주의 흥을 돋운다.

후반부는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들 중

엄선된 곡들로 무대가 꾸며진다. 총의 반주음악이 불꽃처럼 왈츠를 예술성 높은 '감상용 음악'의 경지로 끌어올린 슈트라우스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오페레타 바퀴 서곡, 봄의 소리 왈츠, 천둥과 번개 놀자, 관관절 놀자 등을 연주하며 경쾌하고 달콤한 멜로디에 관객들을 실어 빈 왈츠의 전성기인 19세기를 초대한다.

연주회의 마지막은 슈트라우스 2세의 가장 인기있는 작품이자 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장식한다.

관람료는 R석 1만원, S석 7000원이며, 예매는 엔티켓(1588-2341)과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art.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032-438-7772

/이진 기자 aize@incheonilbo.com



인천문화재단 문화기획 논의의 장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인 '청년문화창작소(기창)'가 인천지역 젊은층을 대상으로 주제별 논의의 장을 연다.

청년문화창작소는 올 1분기 청년대상 공론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주제는 1월10일 공간+공간(공간기획, 인테리어, 디자인), 1월17일 공간운영과 기획사업, 그리고 지열사업(공간 및 단체운영, 기관업무), 1월31일 청년문화창작소 공간디자인(기획, 디자인, 인테리어), 2월14일 공론화에 대하여(언론, 홍보, 마케팅), 2월28일 온라인을 통한 공간+공간(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3월5일 대상공론(1분기 결산) 등이다.

청년문화창작소는 청년 예술인 전용 창작·전시·네트워킹 공간에 지원하고 청년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층 미디어실과 창작공간, 3층 블랙박스 공연 연습 공간, 인쇄제작공간, 전시·교류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곳은 중구전통 옛 인천에고에 조성 중으로 올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명칭을 공모 중이다.

청년문화창작소 관계자는 "각 주제별로 7명 내외의 관련자를 모집해 조성 중인 공간 방문과 인근 식당 등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032-766-5977 /이주영 기자 loaz98@incheonilbo.com

겨울나그네, 독백을 끝내다

황상연 베이스 연주회 ~ 시 '겨울여행'과 소설 '마의 산' 함께 부르며 '동행' 이야기

결별의 시대를 걸어가는 결별의 시대를 위한 연주회가 열린다.

인천 중구 경동동에 있는 문화공간 플레이캠퍼스에서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겨울나그네, 마의 산을 넘다'를 주제로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연가곡 '겨울나그네'와 토마스 만의 장편소설 <마의 산>을 함께 부르며,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제시하기보다는 연대와 동행에 이야기 한다.

'겨울나그네'는 독일 시인 빌헬름 뮐러의 시집 <겨울여행>에 곡을 붙인 것으로 1827년 슈베르트의 나이 서른에 작곡된 작품이다.

사랑에 실패한 청년이 추운 겨울 연인의 집 앞에서 이별을 고하고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들만으로 방랑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추운 들만을 헤매는 청년의 마음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어느덧 까마귀, 숙소, 환상, 도깨비불, 배불과 같은 죽음에 대한 상념이 마음속에 자리잡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을 어귀에서 라이어를 들고 있는 늑대는 악사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고 재한하는 청년에 이야기하는 끝을 맺는다. 쓸쓸한 독백이 넘쳐나는 이 노래는 24개의 곡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을 이끌어갈 황상연 베이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비비굴 투르게네바 국제성악콩쿨 우승과 최고가 곡상을 수상한 후 러시아 마린스키 국립오페라 극장, 러시아척박사로 오페라극장 등 20개 도시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15년간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와 함께 황선화 피아니스트도 호흡을 맞춘다.

이번 공연은 플레이캠퍼스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달부터 6월까지 19세기 독일가곡을 21세기 지구적·지역적으로 재해석해 무대에 올린다. 슈베르트 작품 '겨울나그네'를 비롯해 슈만, 볼프, 말러, 브람스가 연주되며, 오페라는 베르디 작품 라 트라비아타를 소극장으로 맞게 각색해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플레이캠퍼스는 인천연극의 모태였던 동채소극장을 리모델링해 2009년 개관했다. 동채소극장은 1978년 얼음공장에서 소극장으로 탈바꿈한 후 198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려다 1990년 중반부터 쇠락했다. 2000년대 폐관됐다.

관람료는 3만원이며, 문의는 플레이캠퍼스(032-777-8775)로 하면 된다.

/이진 기자

aize@incheonilbo.com



한자 韓字 너 어디 있었니? 2 역지 易地



'입장' 말고 '처지'를 바꿔라

/그림=성미경 '몸 색깔을 자주 바꾸는' 도마뱀.

소한 무렵이 대한 추위보다 때워주 '소한'에 대한 집에 몸 녹이려 간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올해 소한(小寒)은 정월로 대한(大寒)에 놀라 갔는데 이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아지는 모양새다. 기차(기해)년 '돼지'를 뜻하는 글자들과 함께 '4지숙당' 보기를 청한다.

돼지 시(豕)는 돼지가 네 다리로서 꼬리를 치켜든 모양이고, 돼지 돈(豚)은 집에서 기르는 살쥔(豚)·육달(豚) 돼지(豕)를 가리킨다. 돼지 해(亥)는 돼지 모양을 본떠 머리(彡)와 몸통(豕) 다리와 꼬리(人)까지 완벽하게 그렸다. 여자(女)와 남자(人)를 표현한 글자로서 남녀가 애정해 뽀는 모습이다. 따라서 '애정'이 좋은 부분'을 의미한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었는가?

집 가(家)를 두고 한자가 한민족의 글자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집(家)은 안에서 돼지(豕)를 키우는 민족은 한민족밖에 없다. 필자는 여기에 덧붙여 '뿔한 혼(鬪)'을 제시한다. 우리(人) 안에 돼지(豕)를 가두어 놓고 기르는 '통사' 이른바 제주도 통돼지를 뜻한다.

'화돈원돈(火豚豚豚)' 그슬린 돼지가 달아낸 돼지 타령한다'는 직화구이 바비큐판에서 그슬린 돼지가 푸주간에 매달린 돼지를 보고 잘못한다고 꾸짖는 것인데, 어려운 처지에서 오히려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홍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한다. 북한에서는 이를 '달아낸 돼지가 누운 돼지 나무랄라'라는 속담으로 전해진다.

易역 [바꾸다(역)/쉽다(이)]

①易(역)은 도마뱀을 그린 글자다. 도마뱀은 몸 색깔을 자주 바꾸며(易) 자기 꼬리를 쉽게(易) 자르고 도망간다. ②易은 다(태) 일과 勿(말)이 합쳐진 글자다. 여기에서 勿(말)은 月(월)이 변한 모습이나, 易(역)은 해와 달이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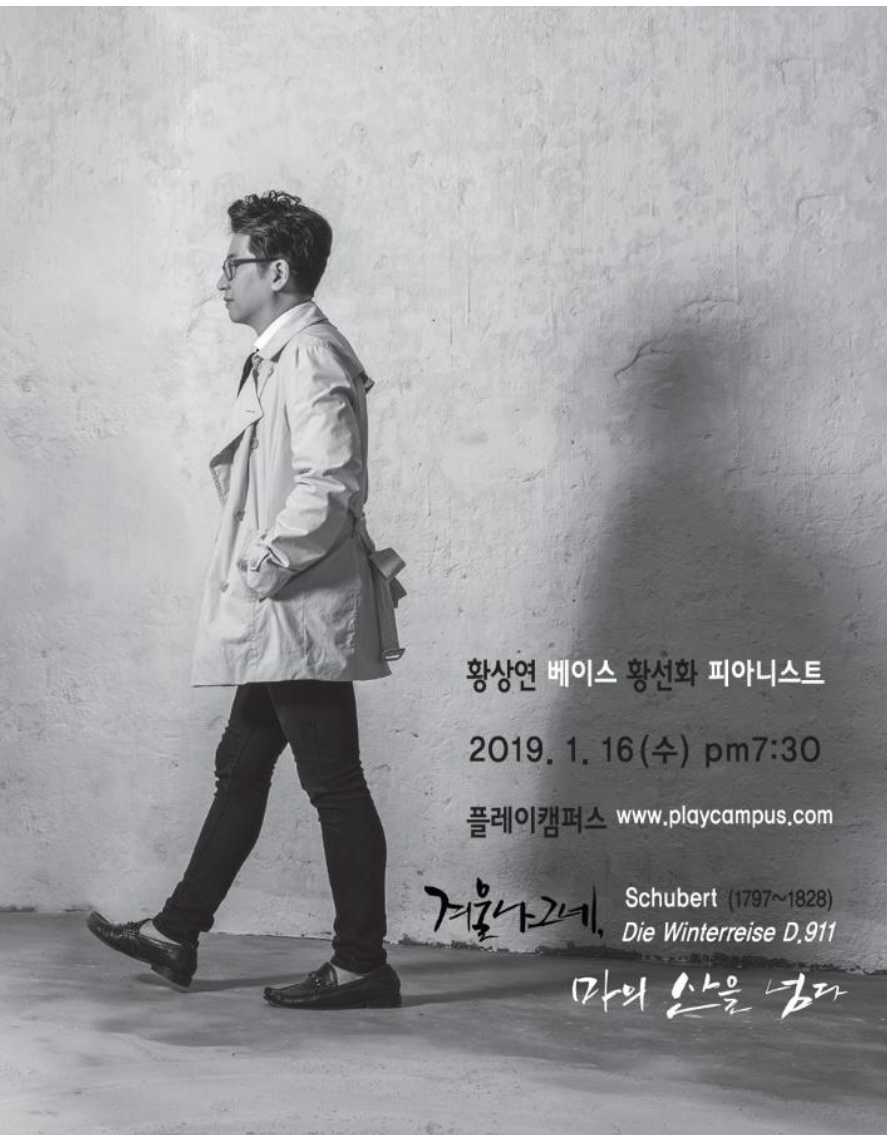
地 지 [땅 / 처지(地)]

①地는 남성을 상징하는 토(토)와 여성을 상징하는 艸(아)가 만나 만물을 토해낸다. ②地는 넓고 큰 땅이며 나라의 영토와 논밭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번바람'과 '처지'라는 의미가 나왔다. '처지'란 처지에 있는 형편이나 사정을 말하며, 지어나 신분을 가리키는 우리말이다. 같은 말로는 '생각, 관점, 상황' 등이 있다.

여당은 야당 처지를 야당은 여당 처지를. 노동자는 사용자 처지를 사용자는 노동자 처지를,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방언이나 생활에서 일제용어인 입장(立場)이라는 말로 도배하고 있다.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단어다.

아직도 불통으로 굳어지려 욕 때문에 돼지는 똑바로 서서 하늘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 보는가? 돼지가 지배자가 비로소 볼 수 있다. 어떻게든 돈과 표만 모으면 된다는 욕심으로 눈앞에 보이는 먹이만 찾지 말고, 하늘을 우리러 부끄럼 없이 살자. 정치인들 특히 당선된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 돈을 지어다. 모가지 잘린 돼지머리 처지가 되어 남의 재래상에서 하늘을 보며 멍하게 웃게 될 것이다. '돈(money)'만 욕심내는 돈(豚)을 꾸짖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전성배 한문학자



항상연 베이스 황선화 피아니스트

2019. 1. 16(수) pm7:30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겨울나그네, Schubert (1797~1828)
Die Winterreise D.911

마의 산을 넘다

결별의 시대를 걸어가다

김대중 · 김영삼 대통령, 신영복 선생, 황병기 명인, 『광장』의 최인훈 작가 ...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 떠나갔다. 이들은 시대의 풍운아로 등장하여 시대의 아버지로 버팀목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아직 그 누구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의문이 든다. 제2의 김대중 · 김영삼이 필요할까?

시대의 자식으로 어떻게 (혹은 어떠한) 어른이 될까를 고민하는 시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제 · 자매 · 친구 · 이웃으로 나아가는 모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보험에 의존한 나머지 모험심을 상실했다. 결행은 고사하고 결별의 고통도 힘겨워한다.

슈베르트 가곡 〈겨울나그네〉(1827)를 토마스 만 소설 『마의 산』(1924)과 함께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베토벤이 서거한 시기(1827)는 헤겔과 괴테라는 이성(계몽)의 시대가 슈베르트와 쇼펜하우어 그리고 토마스 만의 걱정(불안)의 시대로 이행하는 격변기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시대의 격랑을 피하지 않고 시대의 공기를 호흡하며 걸어가다.

〈겨울나그네, 마의 산을 넘다〉는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제시한다기보다 진부하고 흔해빠진 도덕교과서의 목차에나 나오는 연대와 동행을 최우선으로 재배치했다. 결별의 시대를 걸어가는 결행의 세대를 위한 연주회다(〈겨울나그네〉는 겨울여행에서 거리의 늙은 약사와의 겨울동행으로 끝난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 한 번의 영웅적 실패보다 지루한 성공의 길을 가겠다.” 덧붙여,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말한다. 〈겨울나그네, 마의 산을 넘다〉는 위 내용을 융합하여 전달한다.

연출 _ 장한섬

박정숙 메조소프라노

유만, 여인의 사랑과 인생

Robert Schumann (1810~1856) *Frauenliebe und Leben*

2018. 5. 18(금) pm7:30 인천여성문화회관 (부평구청역)

메조소프라노 _ 박정숙

피아니스트 _ 황선화

연출 _ 장한섬

기획 _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공동제작 _ 굿오페라 / 오페라캠퍼스

관람료 _ 전석 30,000원

문의 _ 032)777-8775



슈만 連歌曲 『여인의 사랑과 생애』 메조소프라노_박정숙

피아노_황선화 연출_장한섬

1. 만남_Seit ich ihn gesehen
2. 감탄_Er, der Herrlichste von allen
3. 운명_Ich kann's nicht fassen, nicht glauben
4. 반지_Du Ring an meinem Finger
5. 결혼_Helft mir, ihr Schwestern
6. 임신_Süsser Freund, du blickest
7. 양육_An meinem Herzen
8. 사별_Nun hast du mir den ersten Schmerz getan

클라라 슈만, 사랑의 집에서 사람의 길을 걷다

거장(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이 물러간 1830년대 1810년 전후의 또래 집단(멘델스존, 쇼팽, 슈만, 리스트)은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창조하고자 고민하고 교류한다. 그 사이에서 매개자와 균형추 역할을 한 이가 바로 클라라다.

클라라는 슈만의 아내가 되기 전부터 당대 최고의 피아노 교사인 아버지(슈만의 스승)로부터 음악을 배우고 피테 앞에서 연주한 유망주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아버지와 결별하고 슈만의 아내가 된 후 8명의 아이를 낳고 육아와 내조로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집에 가둔다. 그렇다고 클라라가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이들을 짐처럼 여기지는 않았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음악을 작곡했고, 훗날 미망인이 된 클라라는 슈만의 음악으로 대가로 거들난다. 아이들(특히 큰딸 마리)도 비서처럼 어머니를 돕는다.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슈만이 결혼선물로 작곡한 가곡으로, 아내의 삶을 예언한 듯 클라라의 삶은 노래처럼 흘러간다. 아이러니하게도 클라라의 명성이 최고조에 오를 때 클라라의 삶과 대조되는 모파상 소설 『여자의 일생』이 출간된다. 그렇지만 클라라의 삶이 소설보다 더 감동적이고, 클라라(1819~1896)의 생명력이 모파상(1850~1893)보다 더 오래 간다. 슈만의 음악과 클라라의 인생은 기법과 사조보다 사랑과 신뢰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공연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이러한 세계관과 스토리를 전한다.

2018. 5. 18(금) pm7:30 인천여성문화회관(부평구청역)

관람료_전석 30,000원

문의_032)777-8775

제작_길오페라 / Operacampus

기획_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김진우 바리톤

말려,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Gustav Mahler(1860~1911)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말려,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바리톤_김진우
Gustav Mahler(1860~1911) <i>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i>				피아노_전형진
순서		노래		작품집
1				
제1부 반어(反語)	2	NO.3 이 세상은 나를 잊었네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		뤼케르트 가곡
	3	NO.4 푸른 두 눈동자 Die zwei blauen Augen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4 말려, 교향곡 1번 [거인] 2악장				
제2부 반항(反抗)	5	절룩거리네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 곡, 전형진 편곡)		
	6			
	7	NO.1 그녀의 결혼식 날 Wenn mein Schatz Hochzeit macht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8	NO.3 분노의 칼 Ich hab ein glühend Messer		
	9	피아노 독주_전형진		
10 말려, 교향곡 1번 [거인] 4악장				
제3부 반향(反響)	11	NO.4 한밤중에 Um Mitternacht		뤼케르트 가곡
	12			
	13	NO.11 봄날의 꿈 Frühlingstraum		슈베르트 곡 [겨울나그네]
	14	NO.2 아침 들판을 거닐며 Ging heut' morgen über's Feld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바리톤_김진우 피아니스트_전형진 연출_장한섬

2018. 10. 7(일) pm7:00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_전석 30,000원 문의_032)777-8775

기획_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제작_김오페라

후원_인천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인천문화재단

※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합니다



말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음악에서 최고의 것은 악보 안에 없다.” 구스타프 말러

악보의 완벽한 재현은 앵무새와 우상숭배자에게 양보한다. 세기말 비엔나의 창작물을 헬조선에서 재연하는 것만큼 무개념인 것도 없다. 고로, 말러의 악보를 해체한 후 해몽으로 건너뛰다.

말러(1860~1911)의 시대는 유럽을 보수적으로 지배한 빈체제(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을 말살하고 절대왕정을 복구하고 유지한 체제) 붕괴 후, 그 동안 억압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분출되던 시기이자, 제1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던 허무와 우울의 시대였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말러는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같은 해(1885)에 작곡한다(말러는 같은 시기 교향곡 1번 [거인]을 구상한다).

말러는 제국의 중심 비엔나에서 음악을 했지만, 스스로 “나는 삼중으로 고향^{Heimat}이 없는 사람”으로 자처한다. 그러면서 대지의 마찰(속력)과 중력 속에서 성(城)을 쌓는 대신 땅 속 미로와 우주의 무중력 속에서 반어와 반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한다. 본 공연은 옛 체제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과 지상의 중력에 반항하는 거인 사이에서 분투하는 말러를 그린다. 나아가 헬조선의 방황하는 청춘에게 용기를 주고자 한다.

연출_장한섬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바리톤_김진우 피아니스트_전형진

2018. 10. 7(일) pm7:00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_전석 30,000원 문의_032)777-8775

기획_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제작_굼오페라

후원_인천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인천문화재단

※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합니다



이소연 소프라노

김정호, 조국 위의 나연나비

2017. 12. 30(토) 5pm 한중문화관 (인천아트플랫폼 옆) 소프라노_이소연, 피아노_황선화, 편곡_이상욱, 연출_장한섬

관람료: 30,000원 문의: 032) 777-8775 공동제작_길오페라, 플라르넷, 플레이캠퍼스 www.playcampus.com



소프라노 이소연 /플레이캠퍼스 제공

김정호와 하얀나비

재조명 음악회 30일 인천서

소프라노 이소연 무대 올라

33세의 나이로 요절한 가수 김정호와 그의 음악을 재조명하는 공연 '김정호, 굴뚝 위의 하얀나비'가 오는 30일 오후 5시, 7시 인천 중구 한중문화관에서 열린다.

인천지역 공연기획사 '플레이캠퍼스'가 기획하고 제작한 음악회로, 플레이캠퍼스가 '시대의 노래를 살피다'라는 주제로 배호(1942생), 김정호(1952생), 장덕(1961생)의 노래를 재조명하고 노래 속 세계관을 재구축하는 '성찰(聲察)'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된 공연이다.

'김정호, 굴뚝 위의 하얀나비'는 성찰(聲察)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 첫번째 '배호, 스물아홉 청춘'(2015) 공연이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격변하는 시대를 그렸다면, 이번 공연 '김정호, 굴뚝 위의 하얀나비'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도기 속 '도시미학'을 담아낸다.

소프라노 이소연이 나와 들려줄 이번 공연은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김정호의 '새벽길'과 '작은 새'를, 2부는 '이름 모를 소녀' '달맞이꽃' '꽃잎'을, 3부는 '하얀나비' '등대'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추억의 멜로디 '부평 뮤지컬' '항구의 도시'를 가득 메우다

부평문화재단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목포공연 성황

인천의 창작 뮤지컬이 목포 시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부평문화재단(대표·박옥진)이 제작한 창작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하 당아시)이 지난 22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당아시는 한국전쟁 이후 인천 부평의 주한미군 군수지원사령부(ASCOM)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라이브 클럽과, 그곳에서 음악과 함께 희망을 꿈꾸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다. 'too young' 'hound dog' '노란 샤스의 사나이' 등 귀에 익은 팝송과 가요가 추억의 한때를 떠올리게 하면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공연을 관

한국전후 팝송·가요들로 꾸며져

"오랜만에 좋은 무대 감동" 호평

람한 김선아(목포시 연산동)씨는 "오랜만에 좋은 공연을 만났다. 부평이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에 놀랐고, 부평에 대한 친근감도 생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4년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처음 관객과 만난 당아시는 다음해 대극장 해누리극장으로 무대를 옮겼고,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2016년에는 국립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우수사례로 선정됨은 물론 대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초청으로 또 한번 무대에 올랐다.

부평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문화재단의 제한적 예산과 인력 등 3년 연속으로 자체 제작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서 협업의 모범사례를 만들며 문제를 극복했다"며 "특히 재단 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7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지방투어를 하는 등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통한 도시브랜딩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아시는 내년에도 부평을 비롯해 전국의 공연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중 한 장면.

/부평문화재단 제공



김정호, 꽃 위의 하얀나비 이소연 소프라노

김정호, 꽃 위의 하얀나비 이소연 소프라노	
순서	노래
오프닝	빛속을 돌아서
제1부 새벽길	새벽길
	작은 새
제2부 달맞이꽃	이름 모를 소녀
	달맞이꽃
	외길
	꽃잎
제3부 하얀나비	하얀나비
	등대
	아름다운 사람

1980~90년대 동구권의 몰락과 소련 해체 후 세계는 신자유주의에 물듭니다. 예술도 여기에 휩쓸리며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세계는 음반산업의 음악시장에 흡수됩니다. 그 과도기의 성장통(산업화와 병영국가 속에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의 세계관)을 노래한 음악가가 김정호(1952~1985)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정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1980년대 목소리에서 몸소리로의 확장(남인수▷배호▷조용필)은 1990년대 몸놀림의 화려함(댄스가요)에 묻히고, 몸의 정치가 아닌 몸의 소비로 이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청중이 속되면 음악의 질도 천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예술가 자신들도 청중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을 받는 것은 정신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육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청중의 취미에 맞추어 몸을 흔들거나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김정호 노래를 다시 세우는 것(rebuild)은 87체제의 한계를 성찰해야 하는 시기이고, 어느 때보다 귀명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연 프로그램의 빈 행간을 듣고 읽을 청중과 만나길 바라며, 성찰(聲察) 3부작 중 두번째 작품 <김정호, 굴뚝 위의 하얀나비>를 무대에 올립니다.

소프라노 _ 이소연, 피아노 _ 황선화, 편곡 _ 이상욱, 연출 _ 장한성

2017. 12. 30. 5pm 한중문화관 공동제작 _ 길오페라, 돌파라넷, 플레이캠퍼스

슈베르트 가곡

2016. 11. 25(금) 밤 8:00 연출 _ 장한섬

한중문화관(인천아트플랫폼 옆) 바리톤 _ 김준동

관람료: 성인 3만원, 청소년 1만원 피아노 _ 황선화

주최 _ 길오페라, 플콰르텟 / 주관 _ 플레이캠퍼스

문의: 032)777-8775 www.playcampus.com

겨울나그네,

나의 사랑을 너다



여행에서 동행으로 가는 겨울나그네, 마의 산을 넘다

인간은 삶에 종속시키기에는 참으로 고귀한 정신의 경건함을 가졌기 때문에 삶보다도 고귀하다. 이렇게 나는 하나의 시를, 인간에 관한 꿈결 같은 시를 지었다. 나는 이를 잊지 않을 것이며, 선하게 살고자 한다. 나의 생각에 대한 지배권을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려다! 착한 마음씨와 인간애의 본질은 이런 것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마스 만 『마의 산』 中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의 원제목은 겨울여행(Winterreise)이다.

이 여행은 연인에게 작별을 고한 젊은 방랑자가 “길을 따라 걷다 묘지에 이르렀다”로 시작하는 스물한 번째 노래 〈여인숙〉에서 절정을 이룬다. 방랑자는 “나는 쓰러질 정도로 지치고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다. 『세기말 빈』을 예고한 슈베르트의 예술적 축수가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겨울나그네]는 베토벤이 죽던 해(1827)에 작곡되고, 슈베르트는 다음 해에 눈을 감는다. 헤겔철학의 이성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로 넘어가는 시기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토마스 만은 소설 『마의 산』(1924)의 주인공 한스 카스토르프를 20세기 [겨울나그네]로 그린다. 낡은 세계의 해체, 절망, 죽음의 유혹... 그러나 낡은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불안하지만 대지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참고로, [겨울나그네]의 스물두 번째 노래는 〈용기 Mut!〉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겨울나그네]의 내용을 비극으로만 안다. 이번 공연은 연가곡의 특성을 살려 멜로디와 이미지 넘어 이야기와 구조를 부각시켜 [겨울나그네]가 담고 있는 낡은 세계와의 결별, 불안한 여정, 새로운 연대의 동행을 그리고자 한다.

연출 _ 장한성

배호, 스킨십 青春

2016. 8. 15 **광복절** pm8 인천자유공원

테너_신인수
베이스_이덕기
바리톤_김준동
피아노_윤소미나
사회_박창선

www.playcampus.com

연출_장한섬
편곡_이상욱
포토_유창호
캘리그래피_송병훈
주관_플레이캠퍼스

주최_홍예門문화연구소, 들 콰르텟
문의_032)777-8775



배호, 스물아홉 青春 ‘성악으로 리플레이’

15일 인천자유공원 야외무대 콘서트

스물아홉의 나이로 요절한 천재 가수 배호의 노래를 만나는 ‘배호, 스물아홉 青春’ 공연이 오는 15일 오후 8시 인천자유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홍예문화연구소가 주관하고 플레이캠퍼스·돌과 르텟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배호가 남긴 명곡들을 클래식 음악으로 편곡해 성악가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공연은 오프닝과 해(海), 비(雨), 밤(夜), 별(別), 엔딩으로 5개 부문으로 나뉘 펼쳐진다.

테마에 따라 ‘비 내리는 인천항 부두’,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빗소리는 나의 마음’ 등의 대표곡을 비롯해 ‘산타루치아’, ‘푸니쿨리 푸니쿨라’ 등 귀에 익은 곡들이 연주된다.

이덕기(베이스), 김준동(바리톤), 신인수(테너) 등 성악가와 피아니스트 윤소미, 편곡자 윤상욱이 이번 공연에 참여한다.

중국에서 태어난 배호는 귀국 후 인천에서 잠시 유년을 보내고 인천에 있던 부평미군기지 주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최 측 관계자는 “배호는 인천과 적지 않은 인연을 가진 가수였다. 트로트 가수로만 잘못 알려진 배호의 노래를 새로운 분위기로 다시 시민들과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무료. 문의:(032)777-8775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사진 왼쪽부터 신인수, 이덕기, 김준동. /돌과르텟 제공

‘비내리는 인천항 부두’ 등 배호 명곡들 클래식으로 편곡

베이스 이덕기·바리톤 김준동·테너 신인수가 다시 불러

베이스 _ 이덕기
바리톤 _ 김준동
테너 _ 신인수
피아노 _ 황선화
편곡 _ 이상욱

www.playcampus.com

후원 _ (재)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11. 6(금) pm8 인천여성문화회관(부평구청 앞)

배호, 스물마흔 青春

주최 / 주관 _ 플렉스넷 / 플레이캠퍼스 포토 _ 유창호 캘리그라피 _ 송병운 관람료 _ 30,000원 문의 _ 032)777-8775

※ 본 사업은 인천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합니다

배호, 스물마흔 青春

2015. 11. 6(금) pm8 인천여성문화회관(부평구청 앞)

베이스_이덕기

바리톤_김준동

테너_신인수

피아노_황선화

편곡_이상욱

www.playcampus.com

후원_(재)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본 사업은 인천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합니다.



주최_ **뜰** 콰르텟

주관_플레이캠퍼스

연출_장한섬

포토_유창호

캘리그래피_송병훈

관람료_30,000원

문의_032)777-8775

창작극 **카르멘**
Madam

자본과 계급에 의해 파괴되는 집시 카르텔은 잊어라
1936년 가을, 인천 각국조계(倉庫租界) 카르텔 구파부에서
본능의 자유의 사람 넘어 지성미와 관능미로 진화한 마담 카르텔을 보라

직/전문·정년임	출연·특강출연	최아름, 표정민
박수경 소아과	최보영, 현송이 사지장애	
박문주 소아과	권현정 사지장애	
박광호 내과	권순술 사지장애	
최홍성 사지장애	김형선 정보	
최홍식 사지장애		
박민준 사지장애		

인천중구문화회관

(인원관계서 중구 신흥동 3가 39-24, 정인발송 것글호수 맞은편)

2013. 5. 3(금) 7:30pm / 5. 4(토) 3pm 6pm

관람료_R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15,000원

(청소년, 장애인, 65세 이상 50% 할인, 12세 이상 관람가)

예매 엔디닷컴 www.endif.com (1588-2341) 문의 010-6788-0690

제 작 플레이어캠퍼스 www.playcampus.com

협력 테오도레 오렐라즈비니 등 공동 저자 **낙타사막 이야기**

후원 매디온 정문약국

※본 공연은 인문학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36년 가을, 인천 개항장에서

김호세(金浩勢)는

부모님과 막혼내의 기대에 부응하려 은행에 취직한다.

하지만 일상은 지루하다.

시인을 꿈꾸는 그는 일상의 탈출구를 찾다

카르멘 구락부(俱樂部, club)를 발견한다.

그곳 **마담 최애리**은

악호네 재미란처럼 순종적이고 현모양처는 아니다.

독립적이고 이지적이고 시와 음악을 사랑한다.

또한, 성악가인 어머니를 부양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하다.

그래서 김호세는 마담 최애린에게 반한다.

김호세는 자신을 돌보이기 위해

특차생 박경사와 직장상사인 은행장과

카르멘 구락부에 들려 매상을 올려준다.

그렇수록 김호세의 악혼녀 채미란은 불안해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으로 마담 최애린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경영난으로 대출 문의로 왔다고 말한다.

그러다 김호세의 진심과 용기를 확인한 최애린은

자신과 언니가 독립운동가라 고백한 후

김호세의 도움과 동참을 요청한다.

김호세는 모험심과 상상력이 발동한다.

김호세는

최애린과 중국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악호녀 채미란에게 일본으로 출장을 간다고 말한다.

그날 밤,

항구에서 마담 최애린을 기다린다.

그러면 친구인 박검사가 나타난다.

작곡가 카르멘



카르멘

